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906
----------	-------

발의연월일 : 2021. 8. 4.

발 의 자 : 송재호 · 김민철 · 김승남
김영배 · 김한정 · 민형배
소병훈 · 오영훈 · 윤관석
이성만 · 정청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터넷게임의 과몰입 또는 중독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야시간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대회에 참여하거나 e스포츠 계약서를 통해 등록한 프로게이머 청소년들도 셧다운제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청소년의 직업선택의 기회를 제한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에 대하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스포츠 선수 및 이스포츠 선수가 되기 위하여 이스포츠 단체에 소속된 청소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외를 둠으로써 이스포츠의 진흥 및 청소년의 직업선택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이스포츠 선수 및 이스포츠 선수가 되기 위하여 이스포츠 단체에 소속된 청소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① ----- ----- ----- ----- ----- . 다만,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이스포츠 선수 및 이스포츠 선수가 되기 위하여 이스포츠 단체에 소속된 청소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